

유럽 통합이후 EU의 양돈산업 변화

황 현 순 역

(건국대 대학원 축산경영학과)

양돈시장에서의 잠재적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유럽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에 따른 동구에서의 정치적 변동이 개별국가의 양돈산업에 지속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구에 있어서는 유럽연합(EU)에 4개의 신입회원국 가입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러한 EU의 확대는 1995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1957년 유럽경제위원회(EEC)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설립회원국은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다. 1973년에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했고,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했다. 1995년부터는 이들 12개국 연합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가입하여 16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유럽통합은 인구규모에 있어서 3억4천6백만명에서 3억7천2백만명 이상으로의 시장성장을 의미하고, 양돈생산분야에 있어서도 총돼지두수 1억1천만두에서 1억1천6백만두로 증가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유럽연합내에서 신입회원국들은

돈육생산국이라기 보다는 소비국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신입회원국들의 양돈산업은 대부분의 다른 EU회원국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1인당 연간 돈육소비량은 대단히 많다.

개략적으로 모든 종류의 돈육에 대한 1인당 연간 평균소비량은 노르웨이 20kg, 핀란드와 스웨덴 각각 40kg, 오스트리아 50kg이다. 이들 4개국 중 현재 돈육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는 연간 46만톤을 생산하는 오스트리아, 다음이 28만톤의 스웨덴, 17만5천톤의 핀란드 그리고 9만톤을 생산하고 있는 노르웨이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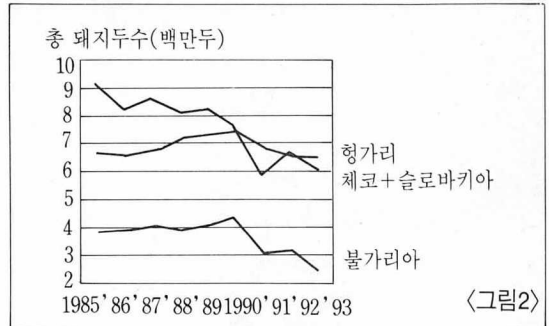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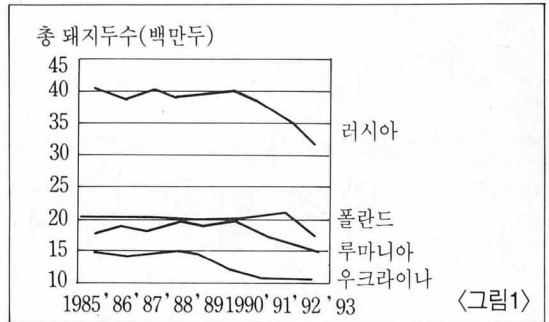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스트리아는 회원국중 돼지두수와 연간 생산량이 9위인데도 불구하고 소비는 3위이다. 스웨덴은 사육두수 11위, 생산 10위, 소비 7위, 핀란드는 사육두수와 생산은 13위, 소비량은 7위이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사육두수와 생산은 15위, 연간 소비량은 14위이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양돈시장에서 돼지고기 순수입국으로서의 결집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4개국중 노르웨이만이 유일하게 규칙적

<표1> 유럽연합국가

(단위 : 백만)

국 가	인 구	총돼지두수
(기존회원국)		
벨 기 에	10.0	7.07
덴 마 크	5.2	10.87
프 랑 스	57.5	12.87
독 일	80.6	26.04
그 리 이 스	10.3	1.11
아 일 랜 드	3.5	1.49
이 탈 리 아	56.9	8.05
룩셈부르크	0.4	0.07
네덜란드	15.2	13.99
포르투갈	9.9	2.67
스페인	39.1	17.63
영국	57.9	7.79
(신입회원국)		
오스트리아	7.9	3.82
핀란드	5.0	1.29
노르웨이	4.3	0.60
스웨덴	8.6	2.25



으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이들 4개국은 서유럽지역에서의 중돈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은 EU 중·동부 절반지역에서 돈육생산에 대한 전망을 바꾸고 있는 이전의 무역장벽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림1>과 <그림2>는 1989~1990년 이후 7개국 표본에서의 사육두수의 감소를 보여준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 돈육의 주요 수입국인 소련의 붕괴, 연합국가에서 독립국가로의 재조직 문제, 사료공급의 부족문제 등이 혼재되어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는 러시아였다. 러시아에서는 돼지두수가 1986년 4천만두에서 1993년 3천1백50만두로 감소했고, 우크라이나는 2천만두에서 1천5백만두, 루마니아는 1천5백만두에서 1천1백만두 이하로, 헝가리는 9백만두에서 6백만두, 불가리아는 4백만두에서 2백50만두로 줄어들었다.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은 그들이 체코슬로바키아를 형성했을 때부터의 발달을 설명

한 것이 <그림2>에서 동일 선상에 함께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슬로바키아의 약간의 성장과 체코의 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1994년도에 주목할 국가는 폴란드일 것이다. 폴란드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1994년 축산물 생산은 3.5~6%의 성장을 추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돈육생산이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994년 말까지 총 돼지 사육두수가 1993년 12월 말보다 6~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폴란드에서의 사육여건이 좋게 나타났으며, 돼지대비 사료가격이 개선되었다. 교배모돈의 수가 1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1993년 9월 이후 교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6월에서 12월까지 125%라는 자돈가격의 급상승 때문이었다.

따라서, 돼지 도살두수는 1993년 상반기에 비해서 1994년 상반기에는 다소 줄어든 반면, 1994년 하반기의 생산량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ig International '94. 6월호에서>